

유럽여행과문학

홀로코스트의 교훈 - 예술의 역할에 대하여

2014130069 박찬희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주제는 바로 7강 ‘아우슈비츠와 첼란’ 이다. 나는 독일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다. 그중에서도 문화와 예술 모두를 보여주는 문학을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도 간간히 서점에 가서 독일문학 코너를 둘러보곤 한다. 그중에서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헤르타 뮐러의 『숨그네』를 가장 좋아한다. 게다가 저번 학기에 들은 교양에서 베른하르트 솔링크의 『더 리더』를 읽은 적이 있다. 덕분에 홀로코스트라는 주제는 나에게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그토록 공공연하고 처참히 살육했다는 사실은 근대사회가 성립한 이래 이성이 지닌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지위를 흔들기에 충분했다. ‘어떻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은 아렌트 이후에 ‘그것은 바로 그 이성과 합리를 맹신하는 시스템 때문이다’ 라는 자조 섞인 인정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고하고 판단해야 할까? 고통스러운 피해자의 기록인 『숨그네』와 전후 혼란세대의 기록인 『더 리더』를 읽으면서 나는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답을 내리기란 쉽지가 않았다. 어쨌거나 우리는 시스템에 종속된 존재이고, 학습된 가치들을 답습하는 존재들이 아니던가. 관점은 자연스럽게 나 자신으로 돌아왔다. 나였다면 홀로코스트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을까? 가치와 규범의 폭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묵인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아마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끊임없이 자각하고 자각하는 것밖에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저 평범한 삶을 영위하기에 바쁜 사람이 이 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고 반성할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들을 사람들은 사회부적응자, 빨갱이 혹은 혁명가라고 부른다. 타당한 주장을 통해서 변혁을 이끌어낼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선사한 사람은 혁명가가 되지만, 대개는 그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만이나 늘어놓는 주변인, 혹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빨갱이로 낙인 찍혀 곁돌 수밖에 없다. 그 누가 이 위험을 감수하고 일어설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술가’ 라는 생각이 뚜렷해진다. 좀더 과격하게 말하자면, 오직 예술가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조리와 폭력을 마주한다. 왜 같은 시간을 일해도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거지가 될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남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뭐든 용인된다고 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왜 자유롭게 원하는 걸 다 못하고 살까? 애석하게도 시스템에 ‘종속’ 된 사람은 결코 이러한 모순을 자각하지 못한다. ‘남들처럼’ 좋은 대학에 가고 뒤쳐지지 않기 위해 스펙을 쌓아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고작이다. 이 시스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술가’ 이다. 시스템의 경계에 서있는 사람만이 그 견고한 건축물의 외벽에 난 균열을 볼 수 있다.

첼란의 시를 통해 나는 그가 발견한 그 ‘균열’ 을 얼핏 볼 수 있었다. 예술이 말하는 방식은 가장 정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적이다. 예술가의 주장은 ‘타인’ 의 주장으로서가 아니라 현상을 바라보는 ‘자기자신’ 의 자각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강력하다. 자기주장이라는 강한 외벽을 뚫고 들어가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내부의 작은 균열로부터 나오는 의문이 지니는 힘은 그 벽 전체를 허물 만큼 강하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예술의 입지가 독일 등 서양문화권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첼란은 “현실이란 있는 것이 아니라 추구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늘 숨 쉬는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듯, 노력해서 보지 않으면 당장 눈앞의 부조리조차 당연하게 넘기기 십상이다. 이러한 ‘무자각’ 의 상태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물론 나치시대처럼 이러한 예술이 오히려 그릇된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의 갇힌 생각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정신 활동의 소산인 예술이 부재할 때 우리는 또 다른 홀로코스트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우슈비츠에 갇혀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근대문학의 종언』에서 기존 사회에서 문학이 지니고 있었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문학의 역할은 단순히 오락거리 이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여전히 모순으로 점철되어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디에나 아우슈비츠가 만연해있다. 갑질 논란이나 성소수자 담론, 장애인 문제 등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술이, 그리고 문학이 들어갈 자리는 남아있는 것이다.